

‘친환경車’ 중심 신차 19종 공개… 미래 모빌리티 총 망라

2021 서울모빌리티쇼 개막

완성차 국내 3곳, 해외 7곳 참여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 자율주행·로봇·서비스형 전면배치

기아, ‘신형 니로’ 세계최초 공개 1세대 이후 5년 만에 완전 변경



2021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공개된 신형 니로.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의 미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내 최대 규모 종합산업 전시회인 ‘2021 서울모빌리티쇼’가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프레스데이(사전 언론공개행사)를 시작으로 개막했다. 기존 서울모터쇼에서 전동화와 자율주행, 서비스형 모빌리티 등의 확산 추세에 맞춰 새롭게 이름을 바꾼 ‘서울모빌리티쇼’에서는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전환을 확인할 수 있다. 2021 서울모빌리티쇼는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10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9·10홀에서 열린다.

◆규모는 줄었지만 후업계 트렌드 한눈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전체 전시 규모는 예년에 비해 축소됐다. 2019 서울모터쇼의 경우 킨텍스 1, 2 전

시장을 모두 대관할 정도로 규모가 컸으나 올해는 2전시장 9홀과 10홀만 운영한다. 참가업체도 2019년은 완성차 21개사를 포함, 총 227개에 달했으나 올해는 국내 3개, 해외 7개 등 완성차 브랜드 10개사를 포함, 100개가 전부다. 새로 공개되는 신차도 월드 프리미어(세계 최초 공개) 1종, 아시아 프리미어 5종, 코리아 프리미어 13종 등 19종으로 소규모다. 전체 출품차량은 78종이다.

그러나 참가업체들이 전시한 차량을 보면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신차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이 주를 이룬다. 또 자율주행차와 로봇, 서비스형 이동수단 등을 전면에 배치해 ‘서울모터쇼’와 차별화를 뒀다.

이날 가장 주목받은 차량은 세계 최초로 공개한 기아 니로다. 친환경 전용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1세대 출시 이후 5년 만에 완전변경 모델로 돌아왔다. 기아는 내년 1분기 하이브리드(HEV) 모델을 출시하고 상반기 중 전기차(EV) 모델을 추가로 선보일 방침이다.

이날 송호성 기아 사장은 “기아에게 가장 큰 영감의 원천으로, 이번에 처음 공개하는 신형 니로는 기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지가 담겼다”며 “니로가 기아를 대표하는 친환경 모델이자 일상생활 속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최선의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 자율주행차와 아이오닉6 콘셉트카인 프로페시, 로봇 등을 출품했다. 내연기관차를 전시하는 대신 전기차와 자율주행, 지속 가능성, 로보틱스, 신규 모빌리티 4가지 테마관



BMW 코리아 마케팅 총괄 주양예 전무가 iX를 소개하고 있다.

을 구성해 미래 비전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꾸몄다. 특히 로보틱스 파크에서는 로봇개 ‘스팟’과 인간 로봇 ‘아틀라스’ 등을 전시, 4족 보행이 가능한 스팟이 전시장 내 설치된 터널과 계단을 오르내리는 퍼포먼스 이벤트를 운영하는 등 로보틱스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제네시스는 8대 전시 차량을 전기차로만 구성했다. 내년 출시를 앞둔 GV70 전동화 모델과 전기차 기반의 GT 콘셉트카 제네시스 엑스, G80 전동화 모델, GV60을 선보였다.

아우디와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수입차 브랜드는 국내 판매를 앞둔 전기차를 대거 출품했다. 특히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공략과 브랜드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공개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아시아 최초 공개 전기차 3종, 국내 최초 공개 전기차 2종 등 참가 수

입차 브랜드 가운데 가장 많은 5종의 전기차를 소개했다. 2년전 8종의 내연기관 프리미어 모델을 공개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이날 공개한 전기차는 EQS를 비롯해 EQE, EQB, AMG EQS 53 4매틱+, 콘셉트 EQG 등이다. 특히 전용 모듈형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벤츠의 두 번째 전기차이자 E클래스급 럭셔리 전기 세단 EQE가 눈길을 끌었다. 또 패밀리 전기 콤팩트 SUV 더 뉴 EQB는 3열 시트를 추가해 7인승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대형 SUV 인기와 맞물려 높은 관심을 받았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AI 기반 SW로 뇌출혈 진단… 골든타임 사수”

SK(주) C&C, 북미 헬스케어 진출



북미영상의학회사 첫 소개 예정 출혈위치·이상여부 정확도 97% 미세한 출혈도 판독해 적시 치료

SK(주) C&C가 뇌출혈을 진단하는 소프트웨어(SW) 기술을 선보이며 북미 헬스케어 시장 공략에 나선다.

SK(주) C&C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북미영상의학학회(RSNA) 2021’에서 AI 기반 뇌출혈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메디컬 인사이트 플러스 뇌출혈’을 북미 시장에 처음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북미영상의학회는 1915년부터 매년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 영상의학 학술대회 및 관련 의료 솔루션 전시회다.

올해는 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맥코믹플레이스에서 열리며 153개국에

서 5만5000명이 넘는 영상의학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학회에서는 아주대학교병원 영상학과 최진욱 교수가 ‘메디컬 인사이트 플러스 뇌출혈’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최 교수는 연구 결과에서 뇌CT영상을 수초 내로 분석해 97% 이상 정확도로 출혈 위치와 이상 여부를 바로 알려주는 ‘메디컬 인사이트 플러스 뇌출혈’의 높은 완성도를 소개한다.

‘메디컬 인사이트 플러스 뇌출혈’은 환자 뇌CT영상을 분석해 ▲뇌출혈 질환 가능성 0~100% 수치로 제시 ▲이상 부위는 색 또는 외곽선으로 표출 ▲심각도에 따라 7단계 레벨로 가이드 해 의료진의 신속한 영상 판독과 대응을 지원한다.

농치기 쉬운 작고 미세한 출혈도 신경두경부 영상 전문의 수준으로 판독함으로써 의료진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초기에 적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메디컬 인사이트 플러스 뇌출혈’은 지난 8월 AI 뇌출혈 진단 의료기기 중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등급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받았다.

3등급 허가는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문서, 임상시험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기술력·안전성이 높게 평가받은 제품만 획득할 수 있다.

SK(주) C&C는 자체 ‘비전 AI’ 기술 중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활용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 적용했고 서울대학교병원과 아주대학교의료원 신경두경부 영상 전문의들이 AI 모델 데이터 학습과 검증에 참여했다. 10만 장이 넘는 뇌 CT 영상 데이터가 개발 과정에 활용됐다.

SK(주) C&C는 이번 학회를 계기로 전세계 병원 및 의료기관들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준혁 기자 junhyuk@



더 프레임

/삼성전자

삼성 ‘더 프레임’ 연 판매량 100만대 돌파

소비자 취향·라이프스타일 반영 인테리어·콘텐츠 수요 공략 성공

삼성전자 ‘더 프레임’이 밀리언셀러에 등극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더 프레임 판매량이 100만대를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더 프레임은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라이프스타일 TV로, TV 영상 뿐 아니라 전용 아트 구독 플랫폼 ‘아트 스토어’로 1500여점 유명 미술 작품과 사진을 감상할 수 있는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더 프레임이 ‘집콕’ 트렌

드로 콘텐츠 소비 욕구 증가와 인테리어 트렌드 확대에 인기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꾸준히 판매량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성일경 부사장은 “더 프레임은 전통적인 TV의 개념에서 벗어나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디자인과 기능을 혁신하고 유명 미술관, 작가와의 협업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SKT, 대학 AI 인재발굴 멘토링 괄목 성과

‘AI 펠로우십’ 3기 성료

11개 팀 32명 학생 연구성과 공유

SK텔레콤은 비즈니스 현장 중심의 연구과제를 통해 인공지능 분야 미래 인재들을 육성하는 SKT AI 펠로우십

(이하 AI 펠로우십) 3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AI 펠로우십은 대학(원)생들이 실제 기업에서 근무하는 개발자들의 현실적인 피드백과 연구비 지원을 통해 AI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올해 AI 펠로우십 3기로 활동한 총 11개 팀 32명의 학생들은 최근 서울 SKT 본사에서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지난 6월 15대 1의 경쟁을 뚫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난 5개월 동안 SKT 사내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으며 AI 실무 과제를 직접 해결했다.

/채윤정 기자 echo@

위니아담체

6인용 식기세척기 출시

위니아 식기세척기가 6인용으로 커졌다.

위니아담체는 25일 ‘위니아 식기세척기 6인용’을 출시했다. 지난 7월 3인용을 출시한데 이어 6인용으로 라인업

을 확대한 것.

이 제품은 1cm 타공만으로 싱크대 상단에 편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식기 오염도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스마트 세척 모드’와 고압 스팀 회전, 75도 고온 살균 세척 등도 가능하다. 내부 바스켓도 대용량으로 30cm 프라이어 등도 세척할 수 있다.

/김재용 기자